

# “땅의 유익은 모두에게 있는 것, 왕은 경작지에 대해서[만] 섬김을 받을 뿐!”(전 5:8[한, 9]):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구자용(주안대학원대)

## 1.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이며 무조건적인”<sup>1</sup> 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적인’이란 형용사에 있다.<sup>2</sup> 그런 소득이 필요한가? 왜 그런가? 명분은 무엇인가? 그런 소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도대체 그런 것이

\* 이 논문은 주안대학원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을 밝혀 둠.

1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 (2013년), 106, 각주 1).

2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는 이것을 “재산 조사나 근로 의무 같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으로 정의한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18), 14. 원제는 Philippe Van Parijs/Yannick 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가능하기는 한가? 등의 질문이 활발하게 제기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논쟁의 상황에서 신학은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3</sup> 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 특히 구약성서로부터의 답을 찾아 제시하는 것 역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오래 전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구약성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것이 있을까? 쉽지는 않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성서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구약성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깊이 파고들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실천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sup>4</sup> 구약성서의 연구가 이렇게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

- 
- 3 테오 쉐너마이어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이 사실 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와 정치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경험하고 있다. 휘발유 주유기에 표기된 가격이 매주 변동되고 러시아 어느 산업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실수”가 독일연방공화국 수백만 사람의 생활 습관에 몇 달 동안이나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신학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꼭 필요한 결론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한다.” Theo Sundermeier, “Konvivenz als Grundstruktur ökumenischer Existenz heute”, Wolfgang Huber/Dietrich Ritschl/Theo Sundermeier, *Ökumenische Existenz heute, Bd. 1* (München: Chr. Kaiser, 1986), 49. 쉐너마이어의 염려와 달리 한국사회 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반갑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다음에서 참고하라.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神學思想』 제150집 (2010년 가을), 177-215; 김학철, “한 데나리온의 애환(哀歡): 기본소득과 경제인권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사상』 제690집 (2016년 6월), 56-65; 김성호, “탈노동 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제36집 (2018년), 437-466; 오단이·서봉근,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년), 121-145;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8년), 241-264; 정용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성서적 제안: 공판복음서의 회년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5집 (2019년 3월), 251-279; 최성훈,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분석: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의의”, 『장신논단』 제52권 3호 (2020년 9월), 141-165; 정용택, “보편적 기본소득의 바울신학적 정당화: 참여소득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109집 (2022년 9월), 175-220;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등.
- 4 서명수는 “구약학은 신학의 큰 테두리 안에 있고, 신학은 불가피하게 당대의 문제에 어

는 연구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목표이므로, 이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논쟁에 의 무감을 가지고 참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약성서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정의한 기본소득, 즉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과연 구약성서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해 희미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본소득의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논쟁에 신학적 안목을 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구약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창조 세계에는 그것을 지은 존재, 즉 창조주와 그에 의해 주어진 생명 그리고 그것의 생존을 위한 모든 환경적 조건 — 당연히 경제적 조건을 포함하여 — 제반의 삶의 여건이 무조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굶주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허용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불의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은 구약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이며, 그러므로 구약의 공동체에도 그 해법이 소위 그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는 연대와 배려로 독려되었다. 그들은 단지 잉여가 발생할 때만 이 일을 하라고 권고된 것이 아니

---

면 형태로든 반응하고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약학 역시 이 점을 간과하거나 초월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명수,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제85집 (2022년 9월), 357-358. 강성열 또한 구약학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심화된 것을 해결할 방안을 한국교회와 신학자들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제82집 (2021년 12월), 234. 김순영도 무엇보다 생태 재난으로 비롯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길을 잠언을 통해 탐구하고 있다. 김순영, “불평등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잠언의 지혜”, 「구약논단」 제81집 (2021년 9월), 209-210.

www.kci.go.kr

다. 결코 현대 사회와 같이 풍족하지 못했음에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행하여야만 했다(신 15:7-11 참고). 현대 사회에서의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권정임은 판 파레이스(Philippe V. Parijs)의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현재 OECD 국가들은 기본소득정책을 당장 시행해도 될 충분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통해 빈곤, 실업의 문제와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sup>5</sup>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비열한 생각’(לְבַבִּי לְעַלִּיל / 레바브 벨리야알; 신 15:9<sup>aa</sup>)<sup>6</sup>이 그것을 도무지 허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가? 성서가 말하는 바가 기본소득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합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다면, 성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히 긍정의 자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위의 신명기 표현처럼 ‘벨리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에서 주의할 것은 그것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그것을 실제 경제와 사회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무조건의 반대는 생산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성서적 태도도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구약학계에서 선행적으로 논의되고 있다.<sup>7</sup> 이 글에서는 구약

5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109.

6 이것은 특히 공동체에 적대적인 악의의 의미를 지닌다.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age* (Berlin/Heidelberg: Springer, 2013) (이하 Gesenius18로 표기함), 152 참고.

7 구약과 관련한 기본소득 연구는 주제 면에서 볼 때, 주로 구약의 토지제도과 희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에

성서 중에서도 전도서를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토마스 페인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향유권’ 주장을 이어가며, 특히 모세오경의 땅 신학을 기초로 기본 소득에 대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 김회권의 주장<sup>8</sup>이 전도서의 사상과 연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먼저 전도서에 경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논하고, 이후 전도서가 제시하는 ‘땅의 유익’의 개념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몫’의 개념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부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전도서의 경제 개념

전도서는 경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경제적 개념인 ‘유익’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전도서의 모토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1:2)란 선포 이후 던져지는 첫 질문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다. 여기 사용된 ‘수고’(עָמַל/아말)는 이어서 언급되는 ‘유익’(יִתְרוֹן/이트론)과 연관하여 볼 때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비른바움(Birnbaum)/슈빈호르스트-쾨베르거(Schwienerhorst-Schönberger)는 특히 ‘수고’를 그것을 통해 획득한 ‘재물/소유물’(Besitz)로 번역하며, 이것과 더불어 여기에 사용된 ‘유익’ 그리고 ‘수고하다’의 세

---

관해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이영재, “오경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본소득,” 『기독교사상』 제690집 (2016년), 66-77; 김상기, “[성서의 눈으로 보는 세상살이 10] 기본소득: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기독교사상』 제699집 (2017년 3월), 122-133; 조혜신,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23권 3호 (2018년), 263-294; 김회권, “기본소득론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경”, 『神學思想』 제195집 (2021년 겨울), 65-108.

8 김회권, 윗글, 82-87, 89, 92를 참고하라.

개념을 전도서의 중심 개념으로 본다. 전도서의 이 질문은 전도서 전체에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는 1-3장 구성의 기본 틀을 이룬다.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질문이 1장 3절과 3장 9절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비른바움/헨베르거가 구성적 측면에서 발견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sup>9</sup>

- |                      |   |            |
|----------------------|---|------------|
| 1, 3 이끄는 질문: 유익?     | } | 지혜자로서의 코헬렛 |
| 1, 4-11 우주에 대한 노래    |   |            |
| 1, 12-2, 26 왕의 트라베스티 | } | 왕으로서의 코헬렛  |
| 3, 1-8 시간에 대한 노래     |   |            |
| 3, 9 이끄는 질문: 유익?     | } | 왕으로서의 코헬렛  |
|                      |   |            |

이 구조는 유익에 대한 질문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17절에 걸쳐 있는 왕의 트라베스티(travesty)와 함께 전도서의 기본 틀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틀이다.

이 두 질문의 사이에 끼여 있는 왕의 트라베스티 역시도 명확히 경제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sup>10</sup> 물론 이것은 일면 왕의 취미로서의 어떤 행위에 대한 서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단순히 한 왕만의 욕망 실현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인생이 삶에서 갈구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댓값, 즉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에 대한 서술로 보아야 한다. 4절에 언급된 ‘나의 행위/사업’(מַעֲשֵׂי/마아싸이)의 구체적인 모습은 6절까지의 집들(בָּתֵּי/바팀), 포도원들(כַּרְמֵי/케라림), 동산들(גִּינוֹת/가노트)과 과원들(עֲרֵבֵי/파

9 Elisabeth Birnbaum/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Das Buch Kohelet* (NSK,AT 14/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12), 49 참조. 볼드체 강조는 임의로 추가되었음.

10 왕의 트라베스티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후후에 진행하여야 할 필요한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르데십<sup>11</sup>, 삼림(רֵעֵץ /야아르)의 조성과 소와 양 떼의 소유로 볼 수 있고, 7절은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으로써의 사들인 남녀 노비들, 집에서 난 종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8절의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는 것까지로 볼 수 있다.<sup>12</sup> 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는 4-9절 사이에 무려 9번이나 사용된 전치사 לְ(리)에 주목하며, 여기에 언급된 왕의 행위를 철저히 왕 자신의 유익에 연관된 행위로 해석한다.<sup>13</sup> 비른바움/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도 왕이 백성을 위해 쏟는 노력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sup>14</sup> 이 판단은 왕의 트라베스티에 사용된 1인칭 화자의 목소리를 고려할 때 당연하며, 이것은 사람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욕망과 그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도에 대한 11절의 종합적 판단이다. 이것은 왕의 트라베스티에 등장하는 가상의 왕 자신의 적나라한 평가로 그 핵심은 무익한 것, 즉 ‘유익이 없는 것’(אֵין תְּרוּמָה)에인 이 트론)이란 표현에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전도자가 가진 경제 개발에 대한 회의적 관점이라고 설블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전도서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표현임에는 틀림없다.<sup>15</sup>

11 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에 의하면, ‘동산’은 사람의 식량 공급을 위한 식물, 채소와 과실수를 위한 것으로 그리고 ‘과원’은 그와는 반대로 다양한 외래의 희귀한 나무들이 심긴 왕의 정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belet* (HThKA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4), 210.

12 4-8절을 한 단위로 보고 단락 구분을 하는 것에 관해서 Thomas Krüger, *Kobelet (Prediger)* (BK XIX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rkirchener Verlag, 2000), 138을 참조하라.

13 Schwienhorst-Schönberger, *Kobelet*, 210.

14 Birnbaum/Schwienhorst-Schönberger, *Das Buch Kobelet*, 78.

15 이에 관해, Diethelm Michel, *Qobelet* (EdF 258; Darmstadt: WBG, 1988), 91을 참고하라. 그는 크뤼제만(Frank Crüsemann)에 동의하며, 1:3의 ‘유익’에 대한 질문은 전도자의 사상 안에서 전형적인 “계산적인 기본 태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며, 유다의 귀족 계층에 유입된 것으로 순전히 경제적 유익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상 행위가 이 사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전도서가 재물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은 책의 여러 곳에서 쉽게 확인된다.<sup>16</sup> 특히 모아 쌓는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함께 전도서의 또 다른 축으로 제안되는 삶의 태도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2:24)은 도무지 재물과 상관없이 제안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מַתָּת אֱלֹהִים)/말타트 엘로힘; 3:13)로 지칭될 때, 재물은 도무지 그것과 무관한 것인가? 다른 곳에서 전도서가 제안하는 바, ‘수고하는 두 손에 가득하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음’(מְנוּחָה וְרֵעוּת עִמָּל וְרֵעוּת חֶפְזִים עִמָּל/멜로 호프나임 아말 우레우트 루아흐; 4:6b)보다 더 나은 것으로 제안하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מְנוּחָה כֶּף מְלֵא/멜로 카프 나하트; 4:6a)에 재물은 도대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인가? 소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재물과 부요로 특정된 ‘그의 몫’(חֵלֶק אֱלֹהִים/헬레코; 5:18[한, 19절])은 또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지칭된다. 즉 하나님의 선물에는 분명 재물이 연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의 경제관념에 재물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재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전도서의 두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sup>17</sup>

16 2:26; 4:8; 5:10-12, 13-14; 6:2 등.

17 세우(C. L. Seow)가 분석한 전도서의 사회경제적 맥락은 전도서의 경제에 대해 풍부한 연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페르시아 시대에 과격적으로 변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지식은 전도서의 많은 구절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해, C. 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21-36을 참고하라.

### 3. 전도서 5장 8절(한, 9절)

전도서 4-6장은 특히 재물과 소유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종교적 비판의 그림(4:17-5:6(한, 5:1-7))이 놓여 있다. 이 논문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첫 번째 본문인 5장 8절(한, 9절)과 연관되는 7절(한, 8절)의 '빈민 학대'를 어떤 경제적 약탈의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그것과 구성적 관점에서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인 4장 1절 이하의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과 그들의 눈물에 대한 그림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전도서 4-6장의 전체적 주제인 재물과 소유에 대한 비판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8절(한, 9절)이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학대를 경제적인 면에서의 악한 행위로 보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 즉 7절(한, 8절)의 내용의 일부인 '빈민의 학대받음'(חַדְוָה לְרַעֲוֵי/오쉐크 라쉬)은 정치적 탄압의 개념 보다는 경제적 수탈의 개념으로 이해할 만하며, 왕의 통치 하에서 펼쳐지는 불의와 나쁜 경제(Misswirtschaft)의 모습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음'으로 언급된 것이다.<sup>18</sup>

전도서 5장 7-8절(한, 8-9절)은 현재에도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난해구절에 속한다.<sup>19</sup> 특히 8절(한, 9절)은 전도서에서 갑작스럽게 언급되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모호한 구절들 중에 하나이다.<sup>20</sup> 그러나 위의 판단을 기초로 전도서 5장 8절(한, 9절)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모호한 의미가 좀 더 분명해 진다.

18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288.

19 Michel, *Qohelet*, 144와 Schwienhorst-Schönberger, 윗글, 320-321의 두 가지로 제시된 해석의 가능성을 참고하라.

20 개인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구절로 1:15, 6:10 등을 들 수 있다.

8a היא בכל ארץ ויתרון/베이트론 에레츠 박콜 히

그러나 땅의 유익은 모두에게 [있는/허용된 바로] 그것.<sup>21</sup>

8b נַעֲבֹד לְשָׂדֵה לְמֶלֶךְ/멜레크 레싸데 네에바드

왕은 [종에 의해] 경작되는[섬김을 받는] 밭에 대해서만 [유익을 얻는다.]

8a절(한, 9a)에서 주목할 표현은 אֶרֶץ וִיתְרוֹן(이트론 에레츠)이다. וִיתְרוֹן(이트론)은 보통 ‘이윤’ 혹은 ‘유익’으로 번역된다. 특히 ‘유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람이 획득하여 그에게 남겨진 어떤 가치나 유용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2</sup> 전도서 1장 3절의 ‘무엇이 유익한가’(וִיתְרוֹן־מָה/마-이트론)란 질문에서도 관찰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얻는 것’(Gewinn)<sup>23</sup>으로 번역하면 ‘이트론 에레츠’는 ‘땅으로부터 얻는 것’, 즉 ‘땅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유익’이 ‘모두에게’(בְּכֹל/박콜) ‘있다’(הִיא/히)는 것이다. היא(히)는 명사절에서 계사(繫辭, Satzkopula) 역할을 하며, 전도서의 이 구절과 동일한 용례를 레위기 17장 11a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8b절(한, 9b)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모두’(כֹּל/콜)와 대비되는 개념인 ‘왕’이 언급된다.<sup>25</sup> 모든 땅이 왕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왕에게는 ‘들판’(שָׂדֵה/싸데)이, 그것도 נַעֲבֹד(네에바드)로 수식된 특별한 땅이 연결된다. נַעֲבֹד(네에바드)는 ‘섬김을 받다’(נַעֲבָד/네에바드, 종결형[pausa]으로

21 필자의 사역과 가장 유사한 번역으로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Eerdmans, 1998), 159를 참고하라.

22 Birnbaum/Schwienhorst-Schönberger, *Das Buch Kobolet*, 50. 또한 Rainer Braun, *Kobolet und die frühhellenistische Popularphilosophie* (BZAW 13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3), 47을 참고하라.

23 Gesenius<sup>18</sup>, 516 참고.

24 Gesenius<sup>18</sup>, 269 참고.

25 כֹּל/콜’을 ‘양식’으로 해석하는 쉘우의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 Seow, *Ecclesiastes*, 204를 참고하라.

서의 니팔 완료형) 혹은 ‘경작이 되는’(רַבְּעָה/네에바드, 니팔 분사형)의 이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니팔 완료형을 취하면, 왕은 ‘들’(הַרְבֵּה/싸테)에 대해서(한정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니팔 분사형을 취하면, 왕은 경작지(רַבְּעָה רַבְּעָה/레싸테 네에바드)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즉 ‘땅의 유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된다. ‘들’(הַרְבֵּה/싸테)<sup>26</sup>을 전반질의 ‘땅’(אֲרָץ/에레츠)과 구별하여 좀 더 명확한 의미로 제시해 본다면, 이것은 경작지의 개념과 가깝고, [왕의] 사유지 혹은 제도적 관리 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그에 반해 ‘땅’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자유로운 땅,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땅’은 직접적으로 뒤따르는 ‘밭/경작지’(הַרְבֵּה/싸테)와 견주어 지고, 이어서 행정적으로 편성된 지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방’(מְדִינָה/메디나)과 대비된다.<sup>28</sup> 이 대비가 의미하는 것은 땅이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왕에게 귀속하지만, 왕의 실제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왕에게 속한 통치 영역인 ‘밭/경작지’와 ‘지방’은 각각 ‘남녀 노비’(2:7)와 관원들에 의해 섬김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고, 그것이 없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자신이 통치하는 곳으로부터의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은 경작되는(섬김을 받는) 밭에 대해서[만] 유익을 얻을 뿐이다.

이 해석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슈빈호르스트-첼베르

26 רַבְּעָה/이르(성읍)에 딸려있는 개념.

27 Seow, *Ecclesiastes*, 204; Roland E. Murphy, *Ecclesiastes* (WBC 23A;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46 참고.

28 구자용, “‘히네, 디메아트 하이슈킴!’(전 4:1b): 사회 정의와 인권에서의 차별에 대한 전도서의 교훈,” 『미션 네트워크』 제7집 (2019년), 131, 각주 8) 또는 구자용, “8장. “보라, 압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전 4:1b): 사회 정의와 인권에서의 차별에 대한 전도서의 교훈,”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혐오를 부르는 이름, 차별: 차별에 대한 인문학적·성서학적 비판』(고양: 한국학술정보[주], 2020), 168, 175의 각주 201) 참고하라.

거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가 해석한 대로 7절(한, 8절)을 나쁜 경제의 구조로 보고, 그리고 그가 제시한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 중 두 번째 해석에서 파악한 대화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29</sup>

7a절	코헬렛의 관찰:	
	빈민에 대한 학대	A
	정의와 공의 강탈	B
7b절	왕정 시스템의 변호자의 대답:	
	상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 시스템	B'
8절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제도적 장점	A'

이 대화의 구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도자의 관찰, 즉 경제적 수탈이 이루어지는 나쁜 경제의 상황에 대한 관찰과 진술에 대해서 왕정 시스템에 속한 사람의 변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제도의 장점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분배와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sup>30</sup> 이런 뒤틀린 경제 구조 속에서도 ‘땅의 유익’, 즉 땅으로부터 나오는 식량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산물, 즉 경제적 개념의 ‘유익’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 나쁜 경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수긍하라는 의미인가? 제도적 모순을 통해 빚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런 억지 주장을 끝으로 종결되는 이 논

29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22.

30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관점을 옹호한다. Michel, *Qobélet*, 91; George A.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1), 127; Helmer Rinnngren and Walther Zimmerli, *Sprüche/Prediger* (ATD 16/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191; Aarre Lauha, *Kohélet* (BK X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04-105를 참고하라. 라우하는 그러나 곧바로 이런 단순한 해석이 문맥에 맞지 않음을 인정한다.

의를 그대로 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겔으로 보기에 전도자가 ‘매우 소극적이고, 비겁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전도자의 적절한 판단과 처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빌메스(Bernd Willmes)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8절(한, 9절)을 “전체로서의 땅의 유익은 이것인데, 즉 왕이 경작되는 땅을 통치한다는 것이다”로 해석하며, 일관되게 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전도자가 자신의 직무에 소홀한 관원들(7절(한, 8절))과는 달리 최종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왕의 통치를 옹호한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슈비호르스트-웬베르거가 제시했던 위의 해석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히려 빌메스 자신의 책 제목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그의 책이 ‘아이러니적 지혜 비판’이라는 핵심어를 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쉽게도 그는 여기서 전도자의 아이러니적 비판을 읽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김순영도 8절(한, 9절)을 왕과 권력자가 야웨 신앙을 수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마땅히 행할 덕목과 연관하여 해석한다.<sup>32</sup> 그러나 김순영은 이스라엘의 역사 및 현실 속에서 그리고 여기 주인공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부의 축적이 가져다 준 명성과 그 허구성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서의 공평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권력의 문제와 그 아래 면면히 흐르는 진실에 시선을 고정한 전도자의 모습을 바르게 주목한다. 이것은 그녀의 말대로 “일찍이 빈곤과 억압을 불러오는 제왕적 권력과 관료제의 한계를 똑똑히 살피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것”이다.<sup>33</sup> 이것이

---

31 Bernd Willmes,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boletbuch: Kobolets Ironie und die Grenzen der Exegese* (BThSt 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154-155.

32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지금, 여기, 행복한 일상을 위한 코헬렛의 지혜 탐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66.

33 윗글, 167-168.

아이러니적 비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가 8절[한, 9절]을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sup>34</sup> 즉 그 아래에서 학대당하는 빈민들의 삶에 대한 관찰과 그것을 개탄하는 전도자의 목소리가 반박되고(즉 ‘이상히 여기지 마라’), 또 왕정 하에서 고안된 감시 시스템을 들어 변증하고자 할 때, 전도자는 우선 이 주장을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인용<sup>35</sup>하고 이후 8절[한, 9절]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므로 8절[한, 9절]의 첫 단어인 접속사 !!(배)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유익은 왕에게 속한 땅에 유용하게 작용하지만, [즉 왕에게나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빈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Der Gewinn kommt dem Land zugute, das dem König gehört, nicht den Armen).<sup>36</sup> 즉 왕이 줄 수 있는 유익은 제한적이며, 그것은 선전일 뿐, 땅의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나쁜 경제의 폐해와 선전에 속지 말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쉘렌베르크(Arnette Schellenberg) 역시도 이 해석에 동조한다. 그녀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높은 사람을 지켜보는 더 높은 사람이 매번 있다는 전도자의 언급은

34 그것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본다. Schwiendorst-Schönberger, *Kohelet*, 323-324.

35 비른바움/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는 전도자가 이것을 아이러니적 어조로(mit einem ironischen Unterton) 인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Birnbaum/Schwiendorst-Schönberger, *Das Buch Kohelet*, 140.

36 Schwiendorst-Schönberger, 윗글, 324 그리고 Birnbaum/Schwiendorst-Schönberger, 윗글, 140을 참고하라.

37 로핑크(N. Lohfink)도 이 본문을 3:16-22 그리고 4:1-6과 관련하여 사회비판적 부분으로 해석한다. 이에 관해, Norbert Lohfink, *Kohelet*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41-42를 참고하라.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 곧 결국에는 정의가 지켜진다는 위로일 수 있지만, 전도자가 살던 시대의 통치 체계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임금의 한계가 있는 권력에 대해 앞서 언급된 비판(4:13-16 참고)에 따르면, 두 번째 풀이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문장(5:9)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8</sup>

정리하면 8절에는 ‘땅의 유익’을 차별 없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단지 ‘경작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노비들의 노동을 통해 획득되는 차원의 소득만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왕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경제적 수탈의 확대와 압제에 관해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선행하는 구절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도자는 당대에 옹호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할 뿐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대안은 아래의 전도서 5장 18절을 통해 더 자세히 논의될 수 있다.

#### 4. 전도서 5장 18절(한, 19절)

땅의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다는 것은 현대산업사회의 실제적 소득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본 취지이다. 그리고 그 기본 취지는 전도서의 다른 여러 개념들과 연결된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땅에 대한 소유

38 대한성서공회,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986. 원제는 Evangelisch-Reformierte Landeskirche des Kantons Zürich,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0).

권 자체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주장인지가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서 1장의 우주의 노래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전 1:4)는 영원히 존재하는 땅을 짧은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소유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부정한다. 땅과 그 땅으로부터의 유익은 온전히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속하고, 그 분이 그 땅의 유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또한 땅의 유익은 전도서의 ‘몹’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전도서의 ‘몹’은 관습과 법에 따라 생겨난 것이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삶에 정해진 것, (즉)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sup>39</sup> 이것을 경제적 시스템의 기초적 토대로 본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성립된 경제 제도가 뒤틀리기 이전 혹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서술되는 하나님의 분복과 그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오히려 이 뒤틀림 자체를 극복하는 유일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크뤼거(Th. Krüger)에 의하면, 전도서 5장 17-18절[한, 18-19절]은 3장 10-22절 중 특히 12-13절에 언급된 ‘최고의 행복’(~보다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없음; אֵין טוֹב בָּם כִּי אֵין /에인 토브 바름 키 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지음 그리고 4, 5장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특히 경제적인 면에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하나의 사회정치적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그 프로그램은 부자 뿐 아니라 가난한 자도 역시 그들에게 허용된 부에 대한 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sup>40</sup> 크뤼거의 이 주장은 전도서 3장부터 5장을 수미상관적 구조로 묶어서 불 안목을 제공한다. 특히 3장 12-13절과 5장 17-18절[한, 18-19절] 사이에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서술들(아래의 음영 처리된 부분)이 반복되며, 그 사이에는 3장 14b절과 4

39 M. Tsevat, “הַלֵּק *hālaq* II”, ThWAT II, 1015-1016.

40 Thomas Krüger, *Kohelet* (Prediger), 232.

장 17절[한, 5:1] 이하에 각각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진술이 자리하고 있다. 즉 이 구조 하에서 보면, 사람의 경제적 활동의 핵심에 하나님 경외 사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빌메스는 5장 17-19절이 세 번째 신학적 본문으로서 첫 번째 신학적 본문인 3장 10-15절에 대한 확장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sup>41</sup> 그렇다면, 3-5장에는 모두 세 개의 신학적 본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도자는 우리 삶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신학적 진술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신학적 본문

3:12 וְיִדְעֲתִי כִּי אֵין טוֹב בָּם כִּי אִם לְשִׂמּוּחַ וְלַעֲשׂוֹת טוֹב בְּחַיָּיו!  
 야다티 키 에인 토브 밤 키 임-리스모아흐 베라이쑤트 토브 베하야브  
 나는 알았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3:13 שִׂיאֲכֹל וְשִׂתָּה וְרָאָה טוֹב בְּכֹל-עֲמָלוֹ מִתַּת אֱלֹהִים הִיא  
 베감 콜-하아담 쉼요칼 베사타 베라이 토브 베콜-아  
 말로 마타트 엘로힘 히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서 좋  
 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3:14b וְהָאֱלֹהִים עָשָׂה שְׂרָאוֹ מִלְּפָנָיו  
 베하엘로힘 아싸 웨이르우  
 밀레파나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다.

41 Willmes,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heletbuch*, 156, 각주 133  
 을 참고하라.

두 번째 신학적 본문

4:17[한, 5:1]-5:6[한, 7] 하나님 경외에 대한 명확한 진술

세 번째 신학적 본문

5:18aα[한, 19aα] וְנִכְסִים וְהַשְּׁלִיטוֹ לֶאֱכֹל מִמֶּנּוּ וְלִשְׂאֹת אֶת־חֶלְקוֹ / 감 콜-하아담 아쉐르  
 עֲשֶׂר נִתְּלוּ הָאֱלֹהִים עֲשֶׂר / 감 콜-하아담 아쉐르  
 나탄-로 하엘로힘 오쉐르 우네카심 베히헬리토 레에콜 밌메누 베라  
 쎄드 에트-헬레코  
 또한 모든 사람이 있다.<sup>42</sup> 하나님이 그에게 큰 부<sup>43</sup>를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챙기도록 허락하셨다.

5:18aβ[한, 19aβ] וְלִשְׂמֹחַ בְּעַמְלוֹ / 베리스모아흐 바아말로  
 그리고 그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기뻐하도록 허락하셨다.]

5:18b[한, 18b] מִתַּת אֱלֹהִים הִיא זֶה / 조 마타트 엘로힘 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분석하게 될 전도서 5장 18절[한, 19절]을 보기 전에 먼저 전  
 도서 5장 9절[한,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  
 의 경제적 욕망과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활동의 불합리성 그리고 한계  
 가 언급된다. 대표적인 그림은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하지 못  
 하는 것과 풍요(הַמְּנוֹן/하몬)<sup>44</sup>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תְּבוּאָה/테부아)<sup>45</sup>으로

42 여기서 נַגַּ (감)의 역할은 앞에 서술된 종류의 사람과 구별하는, 즉 그와는 다른 이런 종  
 류의 사람이 '또 한편에서는' 존재함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동의어인 וְנִכְסִים עֲשֶׂר (오쉐르 우네카심)을 '재물과 부' 혹은 '부와 부'로 번역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큰 부'로 번역함.

44 הַמְּנוֹן/하몬은 '풍부', '재산의 많음'을 의미함. Gesenius<sup>18</sup>, 281 참고.

45 תְּבוּאָה/테부아는 소득, 즉 '거둠으로 얻은 소득'으로 '땅의 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9a절의 표현을 화폐경제와 물물교환 경제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에 관해,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327을 참고하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재산이 증식됨에 따라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다. 게다가 소유주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 당하는 해와 재난으로 인해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부의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중에 인상적이게도 부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누리는 상대적인 마음의 평안이 언급되는 “운명의 아이러니”(Ironie des Schicksals)<sup>46</sup>의 맥락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개념의 몫<sup>47</sup>이 논의된다.

18a절[한, 19절]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부’가 있음을 먼저 서술한다. 그 부는 사람의 소유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가 그것을 누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초점이 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부와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전도자에게는 “소유의 모드가 아니라 현재적 경험의 모드”이다.<sup>48</sup> 그 큰 부로부터 사람은 먹는 것과 그의 몫을 챙기는 것과 그가 수고하는 일을 통해 기뻐할 것을 허락 받는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5:17; טוֹב אֲשֶׁר-יָפֶה/토브 아셰르-야페)이며, 3장 11절의 ‘때에 맞게 적절하고 아름답게 만든 모든 것’(כָּל מַעֲשֵׂה יְהוָה הַכֹּל אֵשֶׁה יָפֶה/할콜 아샤 야페 베일토)이다.<sup>49</sup>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큰 부는 놀라게도 전도서 2장 9절과 대비된다.<sup>50</sup> 그러므로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쌓인 재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공히 할당된 공동의 부, 공공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51</sup>

46 Willmes,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boletbuch*, 158.

47 몫은 이미 17절[한, 18절]에 언급되지만, 그것의 경제적 개념은 18절[한, 19절]에 언급되고 있다.

48 Birnbaum/Schwiehorst-Schönberger, *Das Buch Kobolet*, 149.

49 빌메스의 관점을 참고하라. Willmes,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boletbuch*, 160.

50 이 관점에 관해서는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128을 참고하라.

51 필자가 사용한 이 개념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유 재산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공유 재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자연법에서 말하는 각 사람이 행복할 권리를 갖고, 그 행복을 위해 소유해야만 하는, 즉 필요한 만큼의 재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각 시대별로 주어진 특정된 산업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공공의 재산으로부터 각각의 사람은 먹을 것을 받고, 그의 몫을 챙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헤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경제적 행복의 가능성이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작동한다면 사람은 각각에게 분담된 노동의 자리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행복한 인간의 삶이다.

## 5. 나가는 말

전도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찰 하였던 전도서의 경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왕의 트라베스티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이후의 연구로 미루어야 한다. 또한 이 논문이 직접적으로 다룬 5장의 두 본문 외에도 이 두 본문이 속한 더 큰 틀인 3-6장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도서 5장 8절(한, 9절)은 명백히 왕과 그 왕의 통치 하에 있는 경제 시스템과 그 시스템 하에서의 빈민에 대한 학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전도서의 비판의 핵심은 확실히 아이러니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호함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땅에서 나는 유익은 마치 오늘날의 기본소득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얻어지는 소득 말이다. 어떤 경제적 관리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www.kci.go.kr

다. 물론 오늘날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 세밀한 관리와 통제가 권력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논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본소득도 땅에 대한 공평한 향유권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5장 18절(한, 19절)은 땅의 유익에 대한 활용권이 재물의 형태로 좀 더 구체화된 진술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허락한 재물과 부요, 즉 ‘큰 부’는 인간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인간의 소유와 확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 승인으로만 가능하다. 즉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조건 하에서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뿐더러 수고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인간의 행복이란 소수에게만 제한된 이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도서가 제시하는 이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다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즉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소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일과 그 일을 추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소득과 삶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에게 허용된 큰 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계의 논의들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러러니 했던 바, 신학이 삶에 직결된 중요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구약학 분야에서 비록 충분치는 않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의가 전혀 있지도 않았던 전도서에

www.kci.go.kr

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도 기쁜 일이다. 비록 이 논의가 아직은 매우 모호한 단계에 있으며, 이제 연구의 첫걸음을 떼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깊은 연구 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신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주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구약학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구약학의 분야에서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제82집 (2021년 12월), 216-256.
-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神學思想』 제150집 (2010년 가을), 177-215.
- 구자용, “‘히네, 디메아트 하이슈킴!’(전 4:1b): 사회 정의와 인권에서의 차별에 대한 전도서의 교훈”, 『미션 네트워크』 제7집 (2019년), 121-141/“8장. “보라, 압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전 4:1b): 사회 정의와 인권에서의 차별에 대한 전도서의 교훈”,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혐오를 부르는 이름, 차별: 차별에 대한 인문학적 · 성서학적 비판』(고양: 한국학술정보(주), 2020), 160-175.
-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 (2013년), 105-141.
- 김상기, “[성서의 눈으로 보는 세상살이 10] 기본소득: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기독교사상』 제699집 (2017년 3월), 122-133.
- 김성호, “탈노동 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제36집 (2018), 437-466.
- 김순영, “불평등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잠언의 지혜”, 『구약논단』 제81집 (2021년 9월), 182-215.
- \_\_\_\_\_, 『일상의 신학, 전도서: 지금, 여기, 행복한 일상을 위한 코헬렛의 지혜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김학철, “한 데나리온의 애환(哀歡): 기본소득과 경제인권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

- 사상」 제690집 (2016년 6월), 56-65.
- 김회권, “기본소득론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경”, 『神學思想』 제195집 (2021년 겨울), 65-108.
- 대한성서공회,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원제 Evangelisch-Reformierte Landeskirche des Kantons Zürich,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0).
- 서명수,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제85집 (2022년 9월), 340-371.
- 오단이·서봉근,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년), 121-145.
- 이영재, “오경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본소득”, 『기독교사상』 제690집 (2016년), 66-77.
-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8년), 241-264.
-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정용택, “보편적 기본소득의 바울신학적 정당화: 참여소득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109집 (2022년 9월), 175-220.
- 정용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성서적 제안: 공관복음서의 회년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5집 (2019년 3월), 251-279.
- 조혜신,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23권 3호 (2018년), 263-294.
- 최성훈,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분석: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의의” 『장신논단』 제52권 3호 (2020년 9월), 141-165.
-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테르보흐트,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18). 원제 Parijs, Philippe Van/Yannick 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 Barton, George A.,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1).
- Birnbaum, Elisabeth/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Das Buch Kohelet* (NSK/AT 14/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12).
- Braun, Rainer, *Kohelet und die frühhellenistische Popularphilosophie* (BZAW 13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3).

- Gesenius, Wilhel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age* (Berlin/Heidelberg: Springer, 2013) (Gesenius18).
- Krüger, Thomas, *Kobelet (Prediger)* (BK XIX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Lauha, Aarre, *Kobelet* (BK X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hfink, Norbert, *Kobelet*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 Longman, Tremper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Eerdmans, 1998).
- Michel, Diethelm, *Qobelet* (EdF 258; Darmstadt: WBG, 1988).
- Murphy, Roland E., *Ecclesiastes* (WBC 23A;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 Rिंगgren, Helmer und Walther Zimmerli, *Sprüche/Prediger* (ATD 16/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Schwienhorst-Schönberger, Ludger, *Kobelet* (HThKA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4).
- Seow, C. 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Sundermeier, Theo, “Konvivenz als Grundstruktur ökumenischer Existenz heute”, Wolfgang Huber/Dietrich Ritschl/Theo Sundermeier, *Ökumenische Existenz heute, Bd. 1* (München: Chr. Kaiser, 1986), 49-100.
- Tsevat, M., “חֲלָאֵק II”, ThWAT II, 1015-1020.
- Willmes, Bernd,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beletbuch: Kobelets Ironie und die Grenzen der Exegese* (BThSt 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검색어

전도서와 기본소득, 전도서의 경제, 이트론 에레츠(땅의 유익), 헬레크(몹), 전도서와 아이러니

[ ABSTRACT ]

**„Ein Gewinn der Erde bei Allem [ist], Ein König wird  
[nur] in Bezug auf das bebaute Land!“ (Koh 5,8):  
Theologische Grundlagen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im Buch Kohelet**

Cha-Yong Ku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Diese Studie geht von einem Gefühl der Verpflichtung aus, dass Theologie in die Diskussion übe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einbezogen werden kann und sollte. Viele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 aus verschiedenen theologischen Fächern sind bereits aktiv an derselben Diskussion beteiligt.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ist dabei keine Ausnahme.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vor allem intensiv mit dem Buch Kohelet, weil hie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noch weniger als in anderen Bereichen im AT zur Diskussion gestanden hat. Das Buch Kohelet beschreibt die ökonomischen Vorstellungen äußerst tiefgreifend - im Gegensatz zur oberflächlichen Erscheinung. Kohelet beobachtet das menschliche Leben und betrachtet es sorgfältig, danach lehrt er entsprechende Vorschriften. Dieser Aufsatz versucht durch eine Textanalyse in 5,8 und 18, die Begriffe von „Gewinn der Erde“ und „Anteil“ aufzudecken, die als Geschenk Gottes an den Menschen bezeichnet werden. Sie gehören zu den Schlüsselkonzepten des Buches Kohelet. In 5,8 wird der Gewinn der Erde allen Menschen gewährt, während der König nur ein Recht auf das bebaute Land hat, was die Bemühung vieler Arbeiter voraussetzt. In der Tat bedürfen beide

www.kci.go.kr

Konzepte einer bestimmten Arbeit, aber Ersteres wird nicht auf den Rahmen und die Grenzen des Wirtschaftssystems beschränkt. Obwohl die Beschreibung von 5,7 nicht explizit das Misstrauen gegenüber dem Überwachungssystem unter der Herrschaft des Königs ausdrückt, scheint sie tatsächlich eine Art von Ironie zu sein. Ironie wird erst dann intensiviert, wenn die Absicht der Kritik erkannt wird. Ferner spricht der „große Reichtum“ in 5,18, der jedem als Geschenk Gottes gegeben wird, nicht nur von Privateigentum, sondern von einer Erlaubnis für die Nutzung, die jeder erhalten und genießen kann. Dies wird durch den vorangehenden Text bestätigt. Durch den „Anteil“, der für alle erlaubt ist, kann man das wahre Glück genießen. Wenn er allen gegeben wird, um die Grundlage des Glücks zu werden, dann können der Gewinn und der Anteil des Landes, wie sie in 5,8 und 18 behandelt werden, die Grundlage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sein. Diese beiden Konzepte implizieren das Recht, das Land zu genießen, das Gott allen Menschen gegeben und sie dazu berechtigt hat. Man kann also behaupten, dass der Begriff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wie uns Kohelet sagt, im Buch Kohelet eindeutig verankert ist. Daher müssen die Kirche und die Christen von heute die Diskussion übe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aus biblischer Sicht neu überdenken und unterstützen. Das ist das erste Ziel und der primäre Nutzen dieses Aufsatzes.

#### key words

Kohelet und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Ökonomie im Buch Kohelet, *yitron 'eres* (Gewinn des Landes), *heleq* (Anteil),  
Kohelet und Ironie

투고일 : 2023년 01월 27일

심사일 : 2023년 02월 14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